

## 영아 어머니의 양육 태도와 모성역할 긴장과의 관계

박 정 모<sup>1)</sup> · 김 은 주<sup>1)</sup>

### 서 론

#### 연구의 필요성

아동의 발달과정에서 환경은 아동에게 많은 영향을 주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어머니를 포함한 부모에 의해 제공되어지는 양육환경은 아동의 성장발달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양육행동이란 부모 또는 양육자가 자녀를 대하고 가르치고 돌보는데 있어서 나타내는 태도 및 행동을 말한다(Park & Lee, 1990).

부모가 된다는 것은 일생 중 성인기 사회화과정의 한 단계이며 부모역할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부모에게서 기대되는 역할은 부모로서 가져야 할 부드러운 태도, 따뜻함, 자녀에 대한 헌신, 자녀보호, 자녀의 요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등의 애정결속과 목욕, 안아주기, 수유하기, 옷입히기 등의 신체적 돌봄을 적절히 수행하여 자녀를 돌보는 것으로 출발한다. 부모 중 특히 자녀양육의 대부분을 수행하고 있는 어머니의 경우 이러한 어머니 역할은 직관적인 여성의 기능이 아니라 문화적인 영향과 개인적인 경험 및 학습에 의해 획득되어지며, 역할을 잘 수행하면 어머니로서의 자신감과 만족감이 강화되어 더욱더 자녀를 잘 돌볼 수 있다(Lee, 1992). 그러나 현대사회의 경우, 핵가족화의 증대로 인한 역할모델 부족, 양육경험 부족, 교육의 기회 부족 등으로 인하여 아동 양육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부담감 및 갈등을 겪고 있다. 특히 1997년 경제공황 이후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인하여 자녀를 1명 내지 2명만 낳는 출산기피현상과 양육시설의 제도적 정착 미비

등의 이유들은 양육이 부모 개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사회전반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영역임이 부각되고 있다(Kim, 2002).

현재까지 국내에서 양육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가장 지배적인 요인은 모아 상호작용관계이다. 모아 상호작용관계는 애착과 유대로 발전하며 애착은 출생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매우 복잡하고 역동적인 정신적, 신체적 사건의 결과로서 임신, 출산 전 과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발전되고 습득된다(Kwon, 1994). 어머니와 확고하게 맺어진 애착을 기반으로 영아는 점차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가고 새로운 세계를 탐색하며 발달해 간다. 이렇듯 어머니와의 초기 애착은 결과적으로 아동 및 성인의 사회적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두 번째로 어머니의 환경적 스트레스(An, 1992; Kim, 1996; Lee, 1996; Lee & Nam, 1997; Lee, 1998)가 양육태도 및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즉 장애아를 양육하는 어머니인 경우, 스트레스가 정상아를 양육하는 어머니보다 높았으며 이러한 스트레스는 부정적인 양육태도와 관련이 있었다고 보고하였다(Kim, 1996). 또한 가정불화는 가족의 기능불능상태를 초래하여 자녀에게 정신분열병을 유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어머니의 강압적이고 애정이 없는 양육태도는 아동의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행동과 관련 있다(McFadyen-Ketchum et. al., 1996)고 보고하였다. 세 번째로 어머니의 자존감은 아동에 대한 애정적인 양육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Kim, 1994; Oh, 1991).

현대사회에서는 핵가족 증대로 인하여 젊은 세대가 그들의

주요어 : 영아, 양육태도, 모성역할 긴장

1) 경인여자대학 간호과

투고일: 2003년 7월 14일 심사완료일: 2004년 3월 20일

부모로부터 자녀양육에 대한 기술을 학습할 기회가 감소하였고 여성노동인력의 증가로 출산의 부담은 물론 양육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Lee(1992)는 어머니 역할은 문화적인 영향과 개방적인 경험 및 학습에 의해 획득되어 지는 것으로 역할을 잘 수행하면 어머니로서의 자신감과 만족감이 강화되어 더욱더 자녀를 돌볼 수 있다고 하였다. 모성역할긴장은 모성 역할 또는 어머니 역할의 수행 중 양육과 관련하여 역할에 따른 긴장 및 스트레스로 인한 부담감을 의미한다(Hobbis, 1968; Steffensmeier, 1982). 이러한 모성역할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인구학적 특성, 산과력, 건강상태 등이 확인되고 있다. 즉 어머니 연령이 적을수록 어려움을 더 느끼고 있으며 그 외에도 (Goldsteen & Ross, 1989) 교육수준, 연령, 수입 (Crnic, Greenberg, Robinson, Ragozin & Basham, 1984)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앞서 주장하였듯이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 모아 상호작용이며 부정적인 양육태도를 통하여 영아의 성장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이 영향은 평생을 좌우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영아를 가진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모성역할 긴장을 파악함으로써 양육에 대한 어려움을 파악하고 어려움에 대한 중재를 하여 양육태도를 변화시켜줄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본 연구를 시도하게 되었다.

**연구목적**

- 영아모와 영아의 일반적 사항을 파악한다.
- 양육태도와 모성역할 긴장의 관계를 파악한다.
- 일반적 사항과 양육태도와의 관계를 파악한다.
- 일반적 사항과 모성역할 긴장과의 관계를 파악한다.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영아어머니의 양육에 대한 태도와 모성역할 긴장을 파악하고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상관관계연구이다.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자는 인천시 G구의 보건소에 영유아 발달검진을 받기 위하여 방문한 대상자 중에서 82 명의 영아 모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재태기간 37주 이상 42주 이내로 출생시 체중이 2500g 이상의 정상신생아로 정상분만 혹은 제왕절개로 출생하였으며 선천적 결함이나 심각한 질병이 없는 12개월 이내 영

아를 양육하고 있는 영아모

- 임신, 분만, 산후에 심각한 합병증이 없는 영아모
-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였을 때 이해하고 구두로 연구 참여를 승락한 영아모.

**연구도구**

• 양육태도

Cohler(1970)가 개발한 어머니의 양육태도 도구(Maternal Attitude Scale : MAS)는 23문항으로 5점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영아 양육에 관련된 긍정적 진술에 동의하는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양육태도 측정도구에는 영아의 요구와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태도가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 양육태도 도구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α = 0.84 로 나타났다.

• 모성역할 긴장

Hobbis(1968)와 Steffensmeier(1982)의 모성역할 긴장 도구를 바탕으로 Ko(1996)가 수정한 도구를 기초로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총 27 문항이며 4점 척도로 영아발육과 영아 양육에 관한 지식, 기술 및 책임, 육체적 피로, 장래계획의 변경, 집안정리, 부모로서의 능력, 경제부담, 감정의 불안정, 역할과중, 사생활감소, 수면장애, 양육 시 노력과 시간 등으로 구성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에 대한 모성역할에 대한 긴장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성역할 긴장 도구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α = 0.87 로 나타났다.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연구의 자료수집은 2002년 6월에서 2002년 12월까지 본 연구자들이 영유아 검진을 시행하고 있는 인천시 G구 보건소에서 수집되었다. 본 연구자들이 초기사정 면접할 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난 후 영아모가 자가보고식으로 기술하게 하였다. 설문지 작성하는 동안 연구자와 연구조보원이 영아를 검진하고 돌보아 설문지 작성에 충분한 시간을 배려하였다.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를 부호화 한 후 SPSS 7.5로 전산처리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수집된 자료의 영아모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나타내었으며 영아의 신체계측사항은 최대값, 최소값, 평균값으로 나타내었다. 양육태도와 모성역할긴장감은 최소값, 최대값, 평균값을 구하고 두 변수사이의 상관관계는 Pearson 상관

계수로 분석하였다. 영아모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양육태도, 모성역할긴장감 정도의 차이는 ANOVA와 t-test로 검증하였다.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계수로 산출하였다.

## 연구 결과

### 일반적 사항

영아모의 나이는 26세에서 30세 사이가 43.9%로 가장 많았으며, 25세 이하의 영아모는 6.1%로 가장 낮은 분포를 나타내었다. 영아모의 학력은 고졸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여 57.3%를 나타냈으며 영아의 성별은 남아가 47명으로 57.3%로 나타나 여아보다 많았다. 방문한 영아의 경우 중 43.9%가 초산으로 분만한 영아였으며 56.1%가 경산으로 분만한 영아였다. 영아모가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15.9%로 낮은 분포를 보였으며 영아부가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는 2명만이 그렇다고 응답하여 매우 낮은 분포를 보였다. 경제상태를 묻는 질문에는 중으로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여 87.8%를 나타내었다. 평균 출산연령으로는 31.13±4.62세로 나타나 비교적 평균 출산연령이 늦음을 보였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82)

General Characteristics		Frequency	N(%)
Age of mother	below 25	5	6.1
	26-30	36	43.9
	31-35	26	31.7
	above 36	15	18.3
Education	above college	27	32.9
	high school	47	57.3
	below middle school	8	9.8
Gender of infant	male	47	57.3
	female	35	42.7
Gravida	multipara	46	56.1
	primipara	36	43.9
Employment of mother	yes	13	15.9
	no	69	84.1
Employment of father	yes	80	97.6
	no	2	2.4
Economic state	high	2	2.4
	middle	72	87.8
	low	8	9.8

<Table 2> Physical growth state of infant (N=82)

	Weight(Kg)	Height(cm)	Head circum.(cm)	Chest circum.(cm)	Age(weekly)
Min.	3.50	51	34	33	1주
Max.	10.90	82	49.50	52	12주
Mean	6.11	60.03	39.58	40.45	3.45주
S.D.	1.72	6.52	2.97	3.65	4.76

는데 경산이 많은 분포임을 감안할 때 초산은 더 빠른 연령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방문한 영아의 신체 측정은 체중, 신장, 두위, 흉위를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평균 주수가 3.45주±4.76 주임을 보여 대부분의 영아가 백일이 채 안 되는 영아임을 알 수 있다.

### 양육태도와 모성역할 긴장과의 상관관계

<Table 3> Mean of Maternal role strain and child rearing attitudes (N=82)

	Mean (SD)	Min	Max
Maternal role strain	2.58(0.43)	1.29	3.75
Child rearing attitudes	2.84(0.31)	2.22	3.65

<Table 4> Correlation between child rearing attitudes and maternal role strain (N=82)

	Maternal role strain	Child rearing attitudes
Maternal role strain	r. = 1.000	r. = .532**

\*\* p<0.01

양육 태도와 모성역할 긴장과의 상관관계는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하게 관계가 있었으며 상관계수 0.53으로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영아의 양육태도 점수가 높을수록 모성역할 긴장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 일반적 사항과 양육태도와의 관계

일반적 사항과 양육태도와의 아빠직업 유·무에 따른 양육태도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항에서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양육 태도 점수에서 35세 이상의 어머니와 25세 어머니에게서 평균 양육태도 점수가 높았으며 그리고 26세에서 35세 사이의 어머니에게서 평균 양육태도 점수가 낮았다. 학력에서는 전문대학 이상의 어머니에게서 평균 양육태도 점수가 낮았으며 고졸 이하의 어머니에게서는 평균 양육태도 점수가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성별에 따른 양육태도 점수는 거의 차이가 없었으며 출산력에 따른 양육태도 점수 검증에서는 초산인 어머니에게서 경산인 어머니보다

<Table 5> Relation between general characteristics and child rearing attitudes (N=82)

General characteristics(N)		Child rearing attitudes Mean(S.D.)	S. S. bt. Group wi. Group	M. S. bt. Group wi. Group	F or t	P
Age of mother	below 25(5)	2.94(0.25)	0.29	0.62	0.76	0.56
	26-30(36)	2.82(0.33)	5.93	0.92		
	31-35(26)	2.81(0.29)				
	above 36(15)	2.93(0.29)				
Education	above college(27)	2.79(0.43)	0.33	0.06	0.57	0.75
	high school(47)	2.88(0.30)	6.02	0.09		
	middle school(8)	2.84(0.30)				
Gender of infant	male(47)	2.83(0.27)	0.01	0.01	0.01	0.94
	female(35)	2.84(0.35)	6.35	0.95		
Gravida	multipara(46)	2.81(0.31)	.28	0.14	1.51	0.23
	primipara(36)	2.88(0.30)	6.07	0.09		
Employment (mother)	yes(13)	2.85(0.22)	0.19	0.63	0.66	0.57
	no(69)	2.84(0.32)	6.16	0.95		
Employment (father)	yes(80)	2.60(0.41)	4.87	4.87	5.22	.000
	no(2)	2.35(0.25)	96.27	0.09		
Economic state	high(2)	2.82(0.01)	0.08	0.04	0.39	0.67
	middle(72)	2.84(0.32)	5.92	0.09		
	low(8)	2.56(0.22)				

평균양육태도 점수가 높았다. 아빠 직업에 따른 양육태도점수의 차이검증에서는 아빠직업이 있는 경우가 양육태도 점수가 높았으며 아빠 직업이 없는 경우는 양육태도 점수가 낮아  $p < .000$ 수준에서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다.

경제 상태와 양육태도와의 관계는 유의하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제상태의 상, 중과 하로 응답한

응답자간에 평균의 차이를 보면 경제상태가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계층에서 양육태도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일반적 특성과 모성역할 긴장의 관계

<Table 6> Relation between general characteristics and maternal role strain (N=82)

General characteristics(N)		Maternal role strain mean(S. D.)	S. S. bt. Group wi. Group	M. S. bt. Group wi. Group	F or t	P
Age of mother	below 25(5)	2.74(0.51)	0.23	0.05	0.38	0.76
	26-30(36)	2.59(0.44)	11.92	0.17		
	31-35(26)	2.55(0.35)				
	above 36(15)	2.67(0.42)				
Education	above college(15)	2.57(0.37)	0.14	0.07	0.41	0.67
	high school(27)	2.63(0.43)	12.00	0.17		
	middle school(47)	2.48(0.45)				
Gender of infant	male(47)	2.67(0.40)	0.66	0.66	3.8	0.04
	female(35)	2.47(0.44)	13.40	0.18		
Gravida	multipara(46)	2.55(0.48)	0.09	0.09	0.47	0.49
	primipara(36)	2.63(0.36)	13.90	0.19		
Employment (mother)	yes(13)	2.61(0.30)	0.002	0.002	0.02	0.90
	no(69)	2.59(0.43)	12.12	0.166		
Employment (father)	yes(80)	2.60(0.41)	0.12	0.12	0.71	0.40
	no(2)	2.36(0.26)	12.01	0.16		
Economic state	high(2)	2.21(0.3 )	0.15	0.08	0.44	0.64
	middle(72)	2.58(0.4 )	11.66	0.17		
	low(8)	2.64(0.07)				

영아모의 나이, 학력, 직업 유·무, 출산력, 영아 아빠의 직업 유·무, 경제 상태 등과 모성역할 긴장과의 관계 검증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 성별에 따른 모성역할긴장과의 검증에서 남아 어머니의 모성역할 긴장이 여아 어머니의 모성역할 긴장보다 P값 0.05수준에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모의 나이와 모성역할긴장간의 평균 차이를 비교할 때 25세 이하에게서 모성역할긴장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연령군은 31세에서 35세 사이의 연령대 영아모가 모성역할긴장 점수가 가장 낮았다. 출산력에 따른 모성역할긴장에서는 초산인 어머니가 경산인 영아모에 비하여 모성역할긴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영아모가 직업을 가진 경우가 가지지 않은 경우보다 역할긴장이 평균으로 비교하였을 때 높게 나타났으며 아버지가 직업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역할긴장이 높은 것으로 또한 경제상태가 낮을수록 역할긴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 논 의

양육태도와 모성역할긴장은 양육 시 아이의 성장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개념이다. 양육태도의 중요성에 관한 연구로 Binger(1986), Bang(1990), Sim(1997)의 연구가 있으며 양육태도와 모아상호작용을 연결시킨 연구로 Han과 Park(1985), Bang(1990), Cho(1993)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양육태도와 모성역할긴장과의 관계를 본 연구는 없었다. 모성역할긴장 개념은 역할 이론에 기초하고 있는 개념으로 개인과 사회를 연결시켜 주는 역할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사회적 배경에 따른 인간의 행동이 주요관심이 된다. 사회에서 요구하는 모성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다른 역할과의 상충이 나타나면 어머니는 역할 긴장이 나타나게 된다. 역할긴장이론을 가장 먼저 발표하였던 Goode(1960)가 주장하는 역할 긴장은 모든 기대를 다 충족시킬 수 없는 데서 긴장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모성역할긴장은 어머니로서 역할 의무를 수행할 때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를 말하며 한 개인이 한 역할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에 부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 그 개인 안에 생성되는 스트레스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영아모의 양육태도와 모성역할긴장 간에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연구를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 순상관 관계가 나타났다. 양육태도와 모성역할긴장 사이의 상관계수가 0.532로 나타나 중간이상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양육태도점수가 높을수록 모성의 역할 긴장 점수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두 변수사이에 역상관 관계를 추측하게 하는 일반적인 관념과 반대되는 결과이다. 다시 말하자면, 어

머니로서의 역할의무를 수행할 때 어려움이 커서 어머니 역할에 스트레스를 많이 느낀다면 모성역할긴장은 커지는 것이다. 모성역할긴장이 높은 어머니는 양육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나타나기 어려울 것으로 가정된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는 모성역할 긴장이 높은 어머니가 양육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시행된 연구 중에서 양육태도와 역할 긴장의 관계를 본 연구는 시행되지 않아 본 연구와 비교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기는 어려우나 본 연구결과를 기초로 유추 가능한 부분과 의미 있는 부분을 논의하여 보겠다.

첫째, 대상 영아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측정 결과, 23문항 평균은 5점 척도에서  $2.83 \pm 0.31$ 로 낮은 태도점수를 보였다. 특히 '어머니는 아기가 웃기 시작하거나 타인을 의식하기 전까지는 독립된 사람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라는 항목과 '모유는 분유보다 아기에게 나쁠지도 모른다'는 항목, '아기는 팔, 다리를 지나치게 움직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항목에서 매우 낮은 태도점수를 보였다. 이러한 양육태도는 지식정도에 따라 관련된 점수인 것으로 고려된다. 또한 양육태도에서 아이에게 신뢰감과 애착형성을 위해 필요한 부분들은 점수가 낮았다. 예를 들면 '부모가 아이가 울 때마다 달래주어야 한다', '4개월 정도의 아이들은 어머니가 웃어도 대부분 잘 이해하지 못한다' 등의 항목들은 아이의 태도에 따른 부모의 애착형성을 위해 중요한 부분들인데 이러한 부분들에서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영아모의 모성역할긴장감에 대한 조사에서 '아기 때문에 친구와 만나는 횟수가 감소되었다', '일의 양이 증가되었다', '잠을 제대로 잘 수 없다' '남편과 함께 저녁에 영화관, 쇼핑 등을 할 수 없다' 등의 부담감이 높았다. 즉 자율적인 시간이나 자신을 위한 시간이 부족하다는 부담감이 많았다. 이러한 반면에 남편과 관련된 항목 즉 '아기 양육에 관해 시집으로부터 간섭을 받는다', '남편은 아기에게 너무 적은 관심을 보인다' 등의 항목은 오히려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이 많았다. 그리고 '아기 양육에 관해 시집으로부터 간섭을 받는다'와 같은 항목 역시 낮은 긴장감을 보였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영아모의 취업에 따라 양육태도는 별 차이가 없었으나 모성역할 긴장은 취업한 영아모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Ko(1996)는 같은 도구로 조사한 결과 산후 4주-6주에 비취업 초산모가 취업 초산모보다 역할 긴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음을 확인하였다. 양육태도는 영아의 반응을 얼마나 잘 이해하며 대응하는지에 초점을 둔 반면 모성역할 긴장감은 영아를 양육하면서 나타나는 '일상생활의 변화', '신체적 및 정서적 피로', '배우자와의 관계', '외모에 대한 관심', '부모로서의 가치'를 판단하는 도구로 취업한 여성의 경우 부모, 배우자, 취업여성의 역할을 동시에 이루기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으며, 따라서 모성역할에서 긴장감이 높아지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넷째, Hobbs(1965)는 3 - 18주 사이의 영아를 가

진 부부에게서 양육에 대한 어려움을 확인하여 모성역할 긴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영아의 연령이 주요 변수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가 된 연령 분포를 보면 평균 3.45주±4.76주로 100일 이하의 연령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는 것에 논점을 맞출 때 역할 긴장은 영아의 연령과 깊은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를 지지하는 유사한 결과로 Kwon(1994)도 자녀의 연령에 따라 자녀 돌보기 부담이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상반된 연구결과로는 Han(1997)은 자녀의 연령에 따라 자녀 돌봄의 부담감이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였으며, Han(1997)과 Young(1986)은 모성역할과 양육태도를 시간경과에 따라 출산 후 1개월, 6개월, 1년을 기점을 조사하였는데 특별한 변화가 없음을 확인하여 그들 자신의 어머니에 의해 양육되었던 방식이나 stress를 일으키는 다양한 생활사건 등이 자녀 양육관행에 중요한 변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와 상반된 결과를 보인 연구에서는 모성역할 긴장감도구로 측정된 결과가 아니어서 모성역할 부담감과 긴장감의 개념과 도구 분석에 진전된 연구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 외에도 본 연구에서는 모성 역할 긴장에 영아의 성별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남아의 경우가 모성 역할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같은 도구로 조사한 Ryu, Yang과 Kim(2000)의 연구결과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남아의 경우가 더 높은 역할 긴장점수를 나타냈는데 이와 유사한 결과이며 이와 같은 결과에서도 본 연구대상자들의 어머니들은 영아의 특성이나 연령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양육태도와 영아부의 직업 유무와 유의한 관계가 있었는데 이는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영아부의 직업 유, 무는 사회경제적 수준을 나타내는 절대적인 변수이다. 본 연구에서 영아부의 직업이 없는 대상자가 2명이어서 결과를 직업 유무와 결부시켜서 해석하기에 문제가 있어 경제적 수준과 연결시켜서 논의하자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지만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양육태도 점수는 높으며 모성역할긴장감 점수는 낮게 나타나서 경제적인 수준이 높을수록 어머니 역할을 이행하는데 부담이 적게 해 주는 요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Choi와 Cho(2000)의 연구결과도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들은 조기출산 어머니의 신생아에 대한 부모역할 스트레스 및 불안에 대하여 조사하였는데 두 변수 사이에 순상관 관계가 있었으며 특히 불안은 하위생활정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고 하였다. 심한 경제적 어려움은 부모로서의 역할을 이행하는데 장애 요인으로 특히 어머니에게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며 결국은 양육태도가 부정적으로 나타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 외에도 Goldsteen 과 Ross(1989)는 모성

역할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연령이 적을수록 어려움을 더 느낀다고 하였으며 Crinic et. al.(1993)은 모성역할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교육수준, 연령, 수입을 들었다.

양육태도는 영아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었으며, 25세 이하와 36세 이상의 영아모의 연령에서 양육태도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본인이 너무 어리거나 나이가 있어서 출산을 한 데에서 오히려 더욱 양육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모성역할에 더욱 긴장하여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양육태도점수가 높을수록 모성역할긴장정도 역시 높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초산인 경우에 양육태도 점수와 모성역할 긴장점수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Ko(1996)의 연구에서도 초산모에게서 역할 긴장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과 같은 결과였다. Lee(1995)의 연구에서는 모성역할 긴장점수가 경산모에게서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남편의 지지와 주변의 지지를 공변량으로 처리하였을 때 초산모와 경산모의 모성역할 긴장정도의 차이는 없으므로 나타났으며, 경산모보다 초산모가 아기와 상호작용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도 양육태도 점수가 초산모보다 경산모가 낮게 나타낸 결과와도 비슷한 결과라 할 수 있겠다. 즉 초산모가 아이에게 허용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많으므로 상호작용하는 정도가 많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양육태도 점수 역시 초산모에게서 높은 점수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본 연구에 응하였던 대상자들은 아이의 특성에 따라 상호관계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양육에 대한 관심이 많으며 양육태도가 긍정적인 경우 아이를 잘 양육시키려는 의지가 역할 긴장을 일으킴을 알 수 있었다. 특히 25세 이하, 35세 이상의 영아 어머니와 남자를 가진 어머니, 초산모에게 지식이 부족하여 발생한 낮은 양육태도와 역할 긴장을 감소시킬 수 있는 교육과 상담 혹은 모아상호작용 프로그램의 중재가 필요함을 제시하여 주고 있었다.

##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양육에 중요한 개념인 양육태도와 모성역할 긴장 정도, 그리고 두 개념 사이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시행된 상관관계연구로 조사대상은 2002년 6월에서 2002년 12월까지 인천시 G시의 보건소에 영유아 발달 검진을 받기 위해 내소 하는 대상자 중 정상신생아 출생자로 출생 후부터 12개월까지의 영아와 어머니 82명이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7.5 for Windows를 이용하여 백분율, 최솟값, 최댓값, 평균값, ANOVA, t-test, Perason 상관계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연구도구는 Cohler(1970)가 개발한 어머니

기의 양육태도 도구와 Hobbis(1965)와 Steffenmeiers(1982)의 모성역할긴장도구를 바탕으로 Ko(1996)가 사용한 도구였다. 양육태도 도구는 5점 척도의 2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영아와의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이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모성역할 긴장도구는 4점 척도의 2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모성역할을 수행하는데 긴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양육태도점수가 높을수록 모성역할긴장 점수도 높았다( $r = 0.532, p < 0.01$ ). 즉 양육태도가 긍정적일수록 모성역할 수행에서 긴장이 높았다.

양육태도점수에서는 평균점수로 비교할 때 초산인 영아모가 경산인 영아모보다 양육태도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25세 이하의 영아모와 36세 이상의 영아모의 경우에 양육태도 점수가 높았다. 또한 경제수준이 높은 경우에 양육태도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는 않았다.

영아의 성별에 따라 모성역할긴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 = 3.8, p = 0.04$ ). 남아를 양육하고 있는 영아모가 여아를 양육하고 있는 영아모에 비하여 모성역할긴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영아모의 연령, 학력, 직업유무, 출산력, 경제수준과 모성역할긴장과의 관계 검증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평균점수를 비교할 때 영아모의 연령이 25세 이하, 36세 이상일 때 모성역할긴장점수가 높았으며 초산모가 경산모보다 모성역할 긴장이 높았다. 또한 경제적 수준이 높을 때 모성역할 긴장이 낮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본 연구결과는 양육에 대한 관심이 높고, 양육태도가 긍정적인 어머니가 동시에 양육으로 인한 모성역할 긴장정도도 역시 높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였다. 양육대상자에 따라 아이에게서 영향을 받는 정도가 다를 수 있을 수 있으며, 또한 사회경제적 변수도 양육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수로 이는 대상자에 따라 중재가 다르게 적용되어야 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초산모와 연령이 낮은 영아모나 혹은 나이가 많은 영아모의 경우 특히 양육에 관련된 상담이나 보건교육을 통해서 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고취시키고 모성역할 긴장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다음과 같은 연구를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역할 긴장 점수가 높은 대상자에게서 역할긴장을 감소시켜주는 중재를 하는 중재연구나 모아 상호관계 증진을

위한 중재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양육과 관련된 지식이나 상담을 통하여 양육태도 변화 정도와 모성역할 긴장 정도의 변화를 측정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셋째, 본 연구는 정상 신생아를 대상으로 하였다. 미숙아 경우에 양육태도와 모성역할 긴장 정도와 차이를 파악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 References

- An, J. Y. (1992). *The Relation between Child Care Behavior by Employment of Mothers and Social Ability of Children*. Unpublished master Thesis, Ewha University.
- Choi, Y. J., Cho, K. J. (2000). A Study of Perception of the Newborn, Parental Role stress and Anxiety of Preterm Birth Mothers. *Korean J Women Health Nurs*, 6(4), 493-505.
- Cohler, B. J., Weiss, J. L. Gruenebaum, H. U. (1970). Child care attitude and emotional disturbance among mothers of young children. *Genet Psychol Monogr*, 82, 3-47.
- Goldsteen, K., & Ross, C. E. (1989). The perceived burden of children. *J Fam Issues*, 10(4), 504-526.
- Goode, W. T. (1960). A Theory of Role Strain. *Am Sociol Rev*, 25.
- Critic, K. A., Greenberg, M. T., Ragozin, a. S., Robinson, N. M. & Basham, R. B. (1993). Effects of Stress and Social Support on Mothers and premature and full - term infants. *Child Dev*, 54, 209-217.
- Han, K. J. (1997). The study on the maternal burden of caretaking, the support and educational need for the caretaking activities of the infants' mother. *J Korean Acad Child Health Nurs*, 3(2), 228-240.
- Hobbs, D. F. (1965). Parenthood as crisis. *J Marriage Fam*, 27, 367-372.
- Kim, S. G. (2002). A Concept Analysis of the Caretaking Behavior for Children. *J Korean Acad Child Health Nurs*, 8(4), 414-421.
- Kim, S. K. (1996). *A Relation between Child Care Attitudes and Stress of Mother with Hearing Defected Children*. Unpublished master thesis, Pusan University.
- Kim, Y. I. (1994). *The Effect of the Student Perceived Parenting Behavior and Social-economic Status and Regional Difference on Self Esteem in Middle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 thesis, Kyung-Pook University.
- Koh, H. J. (1996). *The Change and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Role Strain and Self-Identity in First-time Mothers with regard to their Employment Statu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hwa Womens' University.
- Koh, H. J. (1998). *The Change and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Role Strain and Husband's Support in First time*

- Mothers with regard to their Employment Status. *Korean J Women Health Nurs*, 4(1), 5-28.
- Kwon, M. K. (1995). A Need Assessment about Health Care Management in the Mothers with Children visited Health Care Centers. *Newest Med J*, 38(7), 33-41.
- Lee, H. K. (1995). A Comparison of Primiparous and Multiparous Mothers on Maternal Role Strain and Maternal Role Attainment at Eight Months Postbirth. *Seoul J Nurs*, 9(1), 1-11.
- Lee, J. H. (1996). Maternal Caretaking Behavior of Primiparous. *J Korean Acad Child Health Nurs*, 2(1), 5-12.
- Lee, J. I., Nam, J. H. (1997). The perceived parental fostering attitudes by schizophrenics.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36(1), 55-71.
- Lee, S. Y. (1998). *Child care attitudes and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mother with ADHD(compare with high degree and low degree ADHD, low degree ADHD and normal child)*. Unpublished master thesis, Chonnam University.
- Lee, Y. E. (1992). An experimental study on the impact of an agreement on the means to achieve nursing goals in the early postpartum period of primiparous mothers and enhance their self-confidence and satisfaction in maternal role performance. *J Korean Acad Nurs*, 22(1), 81-115.
- McFayen-Ketchum, S. A., Bates, J. E., Dodge, K. A. & Petit, G. S. (1996). Patterns of changes in early childhood aggressive-disruptive behavior : Gender differences in Predictions from early coercive and affectionate mother-child interactions. *Child Dev*, 67, 2417-2433.
- Oh, S. H. (1991). *The Relation between Self Esteem of Children and Children perceived Child Care Behavior of the Mothers*, Unpublished master thesis. Ewha University.
- Park, S. Y., Lee, S. (1990). The Preliminary Study for the Standardizing of Instrument 「Child-Care Behavior of Mother. *J Korean Family*, 28(1), 141-156.
- Ryu, H. S., Yang, J. J, Kim, M. W. (2000). Maternal Role Strain Related to Feeding Methods in Mothers Visited Public Health Center. *Chonnam J Nurs Sci*, 5(1), 47-66.
- Sim J. H. (1997). A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ventory of Pregnancy and the Child-Rearing Attitudes of Mothers with Infants. *J Korean Acad Nurs*, 27(2), 454-464.
- Steffensmeier, R. H. (1982). A role model of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J Marriage Fam*, 44(9), 319-334.
- Young, R. K. (1986). Primiparas' Attitudes Toward Mothering. *Issues Compr Pediatr Nurs*, 9, 259-272.

## A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ild-rearing Attitudes and the Maternal Role Strain in Mothers with Infants

Park, Jeong-Mo<sup>1)</sup> · Kim, Eun-Joo<sup>1)</sup>

1)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Kyung-In Women's College

**Purpose:**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correlation between the child rearing attitudes and the maternal role strain of mother with infants. **Method:** This study is designed as a descriptive research study and the data was collected from 82 mothers and infants by means of an interview and questionnaire in a period from July 2002 to December 2002, when they came to screen their infant's growth and developmental state at a public health center. **Result:**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 There wa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he child rearing attitudes and maternal role strain( $r=.53$ ,  $p=.000$ ).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father's employment state and child rearing attitude of mothers( $t=5.22$ ,  $p<.000$ ).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male infant and female infants in maternal role strain( $t=3.8$ ,  $p=0.04$ ). **Conclusion:** When the child rearing attitude was positive, the subject's maternal role strain was high. Also further research is needed on social support or other factors in the subjects in child-rearing attitudes and maternal role strain.

Key words : Child care attitudes, Maternal role strain, Infant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Park, Jeong-Mo  
 Department of Nursing, Kyungin Women's College  
 548-4 Gyesan-dong, Geyang-gu, Incheon 407-740, Korea  
 Tel: +82-32-540-0182 Fax: +82-32-555-2614 E-mail: jmpark@kic.ac.kr